

# 전북도,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한다

### 광역단체로선 처음...6월까지 관련 조례 제정 금액은 논의 중...농민단체는 월 20만원 요구

이르면 내년부터 전북 지역 농민들에게도 '농민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6월까지 농민수당 지급 계획을 확정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해남군이 올해 처음 도입해 농가당 연간 60만원을 주고 있으며, 광역 단위로는 전북이 최초가 될 전망이다. 지급 대상은 1000㎡ 이상의 농지를 보

유하고 농촌에 실제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민이다. 수당은 현금과 지역 화폐를 절반씩 섞어 일시불로 지급할 방침이다. 액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일선 시·군 및 농민단체 등과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농지 규모 등에 따라 금액을 차등하지 않고 모든 농가에 동일하게 준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해 일선 시·군과 농민단체 관계자로 '전북도 공익형직불제(농민수당) 논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지원 대상과 이행 조건 등을 조율해왔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물품목장은 "농가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하려 한다"고 설명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

을 열어 농민수당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창출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출발한 것으로, 정치적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월 20만원의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말했다. 이어 "전북도가 농민수당을 논의하고 있으나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며 "서둘러 재원을 마련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군산시, 개인별 맞춤형 금융 지원책 마련 전국 첫 '서민금융 지역협의체' 구성 금융권·자활센터 연계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서민금융 지역협의체'를 구성했다. 군산시는 지난 12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주축으로 금융권, 자활센터 등 8개 관계기관과 서민금융 지역협의체 결성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협의체 구성은 지자체와 금융권, 자활센터가 연계돼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지원 협업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협의체는 향후 운영 방안과 참여기관의 지원제도 공유 등 관계 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개인별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민이 대출, 채무조정, 취업 등 개인의 상황과 목적으로 관련된 관방문을 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 원스톱 해결이 가능해졌다. 김문숙 군산시 지역경제과 계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서민금융 지역협의체 활성화에 주력하고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지난 1월 개소 이래 서민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달 말 현재 총 232건(종합상담 66건, 미소금융 94건, 채무조정 70건 등)의 서비스 지원 실적을 기록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



## 정읍시, 공공체육시설 22억원 들여 개보수 작업

정읍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에 선정, 18억1500만원을 확보하면서 추진하게 됐다. 시는 확보한 국비와 함께 시비 22억 3500만원을 추가 투입해 종합경기장 관람석 안전보강 개보수, 신태인죽구장 개보수, 신태인테니스장 개보수 사업을 전개한다. 또 종합경기장의 관람석과 야외화장실 재건축, 전광판, 야간 조명시설, 부대시설 등을 정비한다. 개보수 사업은 오는 4월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오는 2020년 11월까지 마무리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창군, '판소리 성지' 명성 되찾기 나서

동리정사 복원사업 진행 등  
고창군이 '판소리 성지'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13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 판소리창시지 동리정사(桐里精舍) 복원' 사업을 진행한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유기상 군수와 이경신 군의회 운영위원장, 설태종(사)고창거리당산제보존회 회장, 이병렬(사)고창문화연구원 지리학박사 등이 참여하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동리정사는 동양의 세익스피어로 불리우는 동리 신재효 선생이 넓따란 집을 자

## 익산시 '도시재생뉴딜사업' 본격 추진

### 유라시아 시발역 선정 대비 22년까지 270억 투입

익산시가 유라시아 시발역 선정에 대비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 익산시에 따르면 '역사가 문화로(驛舍街文化路)'를 슬로건으로 익산역 주변의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270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구간은 옛 하노바호텔부터 손악국까지 총 면적 18만5000㎡다.

시는 문화주차장과 청년창업자를 위한 빈점포 활용·상가 활성화사업, 익산철도 100년 유·무형관광자원(삼산의원), 다목적광장조성 등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15개 단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청년창업 지원 등을 위한 어울림플랫폼 설치를 위해 옛 하노바호텔을 매입했다.

또 3곳의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 인프라 지원을 위해 상가를 매입, 다기능 주민편의시설 설치 설계용역에 들어갔다. 시는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100년 철도의 역사와 유라시아 철도 시발역으로서의 역할에 걸맞게 익산역 주변을 재단장하고 정부, 지자체,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철도 100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테마로 특화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익산=유정영 기자 yiy@

## 여천시, 노인 이용 시설에 남원시, 공기청정기 지원

남원시가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노인들이 이용하는 기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설치를 희망하는 어린이집 50곳에 1억원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221대를 보급했다. 지역아동센터 23곳에도 3112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기청정기를 보급·설치했다. 시는 올해도 공기청정기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달 중 490곳의 경로당에 총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공기청정기 980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근린상가 (중동 락희호텔, 흙플러스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 210평(실평 147평, 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스크린골프장, 사무실등등)
- 감정/시세 -14억
- 급매 - 8억 (대출 3억 3천만원 포함)

문의. 010-6834-7400

## 회사 사정상 급매

- 전남 여수시 봉강동, 대지 431평
- 세일신경외과 바로 옆, 6차선 도로접, 전면65M
- 일반상업지역, 분할매매가능
- 대출-20억5천만원, 시세/감정가-약 40억
- 호텔/주상복합상가/메디컬센터등 모든업종 개발가능
- 매매 - 상담후 결정

주인직매. 010-3627-8282